

축산업 인식개선 운동 적극 추진해야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

우리나라 축산업은 짧은 연륜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가축 사육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농촌경제를 견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통계를 보면 축산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1차산업 총 생산액의 35.5%인 16조 5천 억원에 달한다. 물론 지난 2009년에는 42%인 17조원을 차지했었지만 2010년 FMD 파동이후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단일 업종으로는 국내 최대 품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가축사육두수 증가는 축산물 소비 증가에 비례된다. 2013년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육류 45kg, 우유 및 유제품 72kg, 계란 10kg을 비롯해 오리와 염소 등 특수가축을 포함하면 무려 135kg 이상을 소비한다.

이 같은 소비량은 쌀 68.2kg의 배에 해당된다. 이제 축산물은 명실공히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식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통계를 감안할 때 농업의 개념은 재배농업이 아니라 동물산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축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이긴 하지만 좁은 면적에서 밀식 사육하는 등 경영여건이 아주 취약한 관계로 악취나 축산분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또 배합사료 원료 곡물을 수입해 사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는데 굳이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내에서 축산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식생활의 서구화로 근년에 와서 육

류와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하자 일부 의사나 채식주의자들은 축산물이 마치 비만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안티축산은 국토가 좁은 이 땅에서 축산을 하느니 차라리 수입해서 먹는 편이 좋다는 괴변도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축산업은 세금이나 축내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산업임을 지적, 안티축산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안티축산과 채식주의자들이 무분별하게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해 공격해 오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축산분야는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저들의 비판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그들의 논리가 정당화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축산업에 대한 장점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안티축산은 대부분 축산현장을 잘 모르면서 겉모습, 그것도 오래된 과거의 것들을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축산현장은 나날이 발전을 가져와 분뇨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유기질 비료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악취도 일부 취약한 여건에 있는 농장 외에는 저감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등 첨단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지 않는가?

사료곡물 수입도 그렇다. 사료곡물은 대부분 옥수수나 밀, 타피오카, 대두박 등이다. 모두가 가격이 낮은 곡물이거나 폐기물로 아프리카 등 저 개발국가를 제외하고는 다소 기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외에는 식량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값싼 곡물을 수입해다 고급단백 식량을 생산해 주식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배합사료를 비롯해 연관산업의 고용창출과 국익증진은 덤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축산업에 대한 편견과 각종 규제를 방관하지 말고 축산인 모두가 축산업 인식개선 운동에 앞장서 축산업이 계속 농촌 경제의 버팀목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식량 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